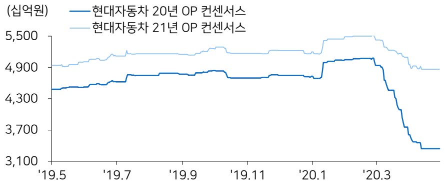
Daily Auto Check 2020. 5. 14(T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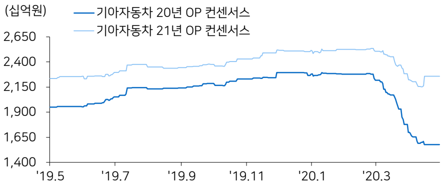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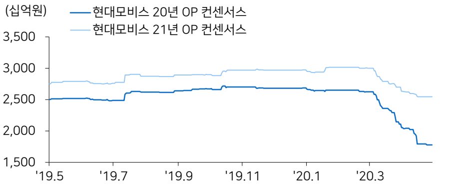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dabin.le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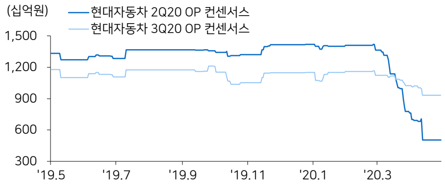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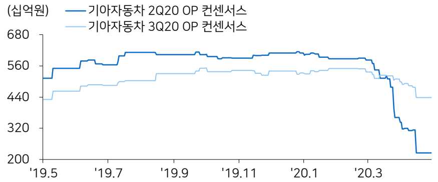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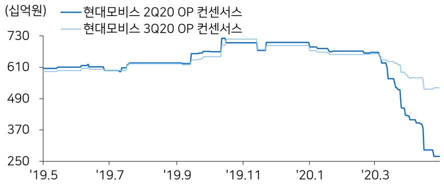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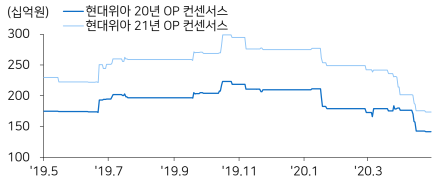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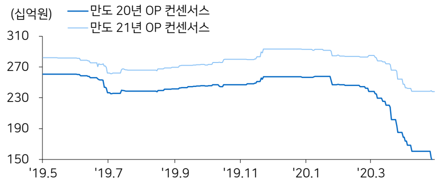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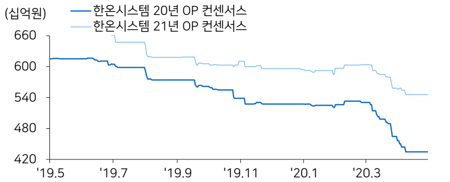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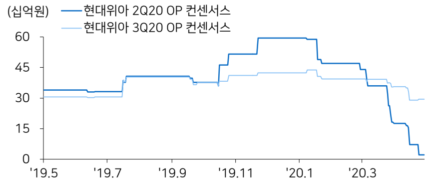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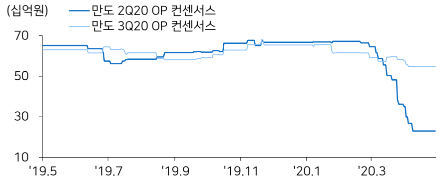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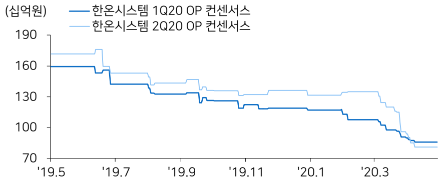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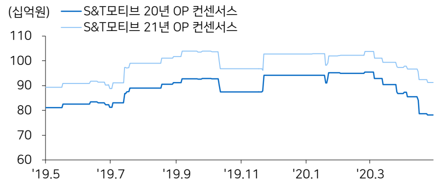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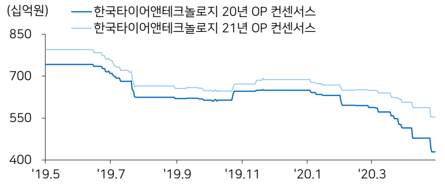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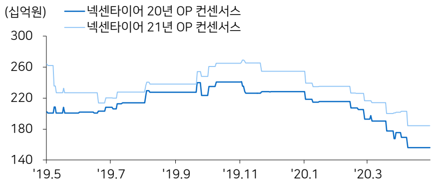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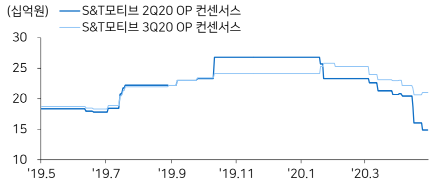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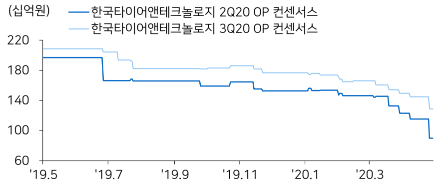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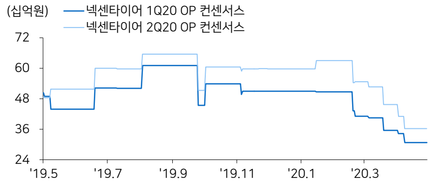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 · 기아차, 전기차 배터리 해법 삼성서 찾나? 셀 생산 조인트벤처 설립 전망 (M오토데일리)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이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조우. 업계에서는 두 그룹 총수가 전기차 배터리 문제로 만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https://bit.ly/2LsaDKc

"집에서 시승하세요"…제네시스 시승차 배송 서비스 (중앙일보)

제네시스는 개별 소비자에게 담당 직원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컨시어지' 서비스를 11일부터 시작.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원은 소비자 의견과 취향에 따라 신차 검색부터 최종 인도까지 전반을 맡게 됨.
https://bit.ly/3fIjllz

현대차 노조는 왜 '임금' 대신 '일감'을 얘기하기 시작했나 (머니투데이)

대립과 갈등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한국 노사문화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 생산, 판매, 고용이 위태로운 생존 기로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설정을 설정을 위해 노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음.
https://bit.ly/2LwosHj

코로나19 여파로 3~4월 미국 · 유럽 · 일본 자동차 488만대 감산 (연합뉴스)

미국, 유럽, 일본 등 3개 지역에서 지난 3~4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자동차업체의 감산이 500만대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옴. 닛케이는 3월부터 두 달 간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공장의 감산 규모가 총 488만대로 파악됐다고 전함.
https://bit.ly/35Vp3Me

코로나 장벽에…현대 · 기아차 "수출보다 내수" (서울경제)

현대 · 기아차가 코로나19 이후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 코로나19로 인해 내수 판매가 수출보다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차종별 생산물량 조절과 각종 마케팅을 통해 신속하게 내수 판매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음.
https://bit.ly/2yUZ5fF

정의선, 서울 삼성동 현대차 GBC 독자적 개발로 선회하나 (비즈니스포스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현대차그룹 독자적 개발로 선회할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할 만한 외부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https://bit.ly/3fPfC5t

멕시코 18일부터 경제활동 재개…자동차공장도 다시 운영 (SBS뉴스)

멕시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췄던 경제활동을 서서히 재개하기로 함. 현지시각 13일 멕시코 정부는 보건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 등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
https://bit.ly/3dGzSEE

만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배곧신도시 지킨다 (이데일리)

오는 7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에선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볼 수 있게 됨.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는 13일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밝힘.
https://bit.ly/3cvQ2R6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